

가을맞이 연당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

A / u / t / u / m / n



- 주 최 : 극단 「아 셴」, 「장고개 작업실」, 연당 소극장 극단 「연극 만나기」
- 일 시 : 2001. 8. 28(화)~2001. 9. 30(일)
- 장 소 : 연당 소극장



공연을 준비하던 중...

정혜경

공연을 준비하던 중 아빠의 상이 있었다.

이미 예정된 결론이었지만 아무런 준비 없던 나는 쓰러질 만큼 많이 울었다.

가이아의 품에서 우라노스의 품으로 아빠를 배웅하고 온 뒤

나는 변함없이 굴러가는 일상에 적응하는 일이 참 힘들었다.

아니, 이미 아빠도 안 계신데 마치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진행되는 잔혹한

일상을 거부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사의 잔인함은 또한 일사의 위대함.

나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일상에 나를 맞기기로 했다.

그렇게 한동안 일상이 나를 끌고 갔다.

첨 해보는 이인극

연출인 나도, 배우도 너무나 빨리 지쳐가고 있었다.

두사람이 서있기엔 터무니없이 커 보이는 무대... 자주 도피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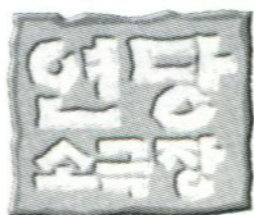
그러나 그 때도 여지없이 일상이 우리를 끌어주어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고 (?)

지금까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을 끝자

일상을 책임지고, 나를 책임지고, 힘이 난다면 이웃도 둘러보자.



사랑...그 오랜 속성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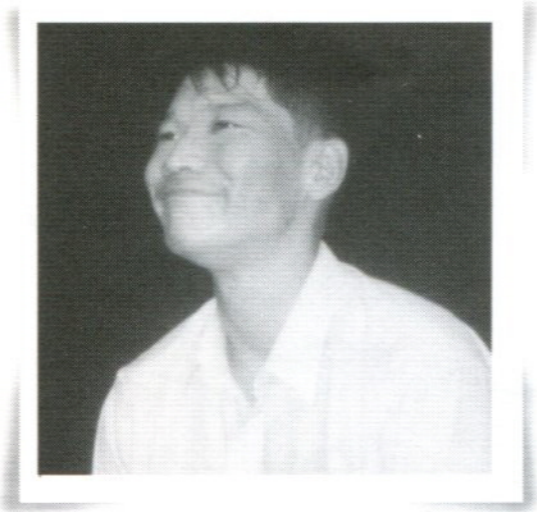
유사 이래로 인간의 최대의 관심거리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전쟁이란. 아이러니컬하지만 이 상반되는 두 의미는 실은 하나의 모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사랑하니까 싸우고, 사랑이 미움이 되니까 싸우고, 사랑할 수 없으므로 또 싸우고...
 그래서 여기 두 남녀가 있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이다. 내기 전쟁.
 52년 용띠 만화가 나용두.
 내기에서 진 이유로 대청공원을 알몸으로 돌아야했던 그.
 그는 결국 결정적인 내기에서 이겨 그녀 지견숙을 얻었다.
 58년 개띠 잡지사 기자 지견숙.
 어릴적 내기에서 진 이유로 불침을 아흔 아홉방을 맞아했고, 내기에 진 까닭에 결혼까지 한 그녀.
 여자라는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은 페미니스트의 여전사.
 이제 그들이 만났다. 결혼까지도 했고 애도 낳았다.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자라며 그들의 내기는 어떻게 진행 되는가... 살아있는 한 그들의 내기는 끝나지 않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는 아내의 죽음에서부터이다.
 10년을 넘게 산 이들 중년부부는 이제 서로의 리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아내를 후두암에 빼앗겨 그 만 떠나보내야 한다.
 너무나 많은 말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그들은 참 담담히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회한에 젖어 과거를 회상하는데...
 특이한 그들의 만남부터 우리는 볼 수 있다.
 만화가 나용두를 취재하러온 잡지사 기자 지견숙.
 알고 보니 그들은 내기 프로들.
 야구선수 누구누구의 고향내기에 인생을 걸었다.
 두 눈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순간 울려 퍼지는 웨딩마치.
 그리고 생활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밥해먹기에 신물이 나고, 빨래 걸기로 싸우고, 돈벌어 오는 일에 지치고... 그들이라고 비껴갈 수는 없다. 결혼 7년 그들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사는 게 또 어디 그런가...
 애까지 있는데 이혼은 또 그렇게 쉬운가.
 우리랑 똑같이 사는 것 같은 그들은 그러나 또 다르다. 승부사들이니까.
 보다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은 막을 수가 없다.
 단, 잃어버린 배꼽은 극장 당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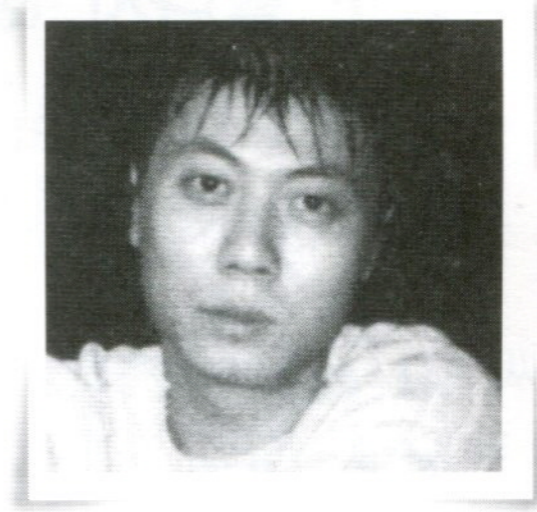
· CAST



용 두 / 이 승 호



견 숙 / 장 진 경



특별출연 / 황 용 민

· STAFF



연 출 / 정 혜 경



무대감독 / 김 도 형



무대미술 / 신 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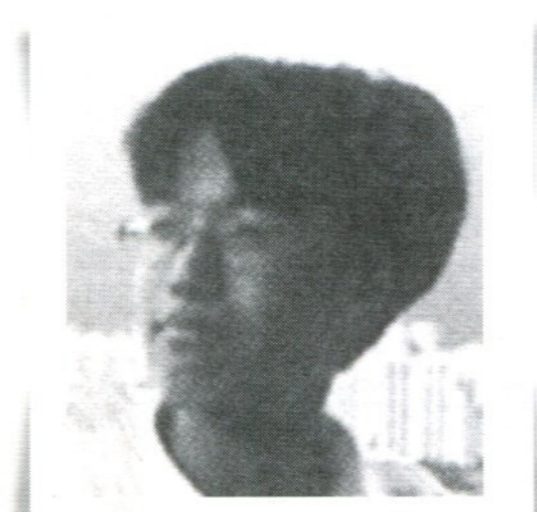
분 장 / 장 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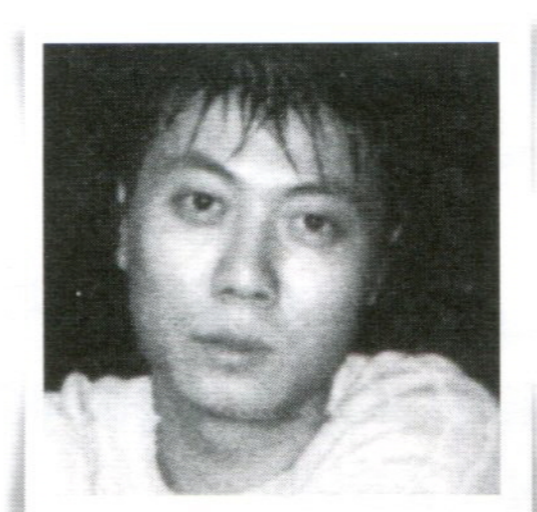
소품,의상 / 이 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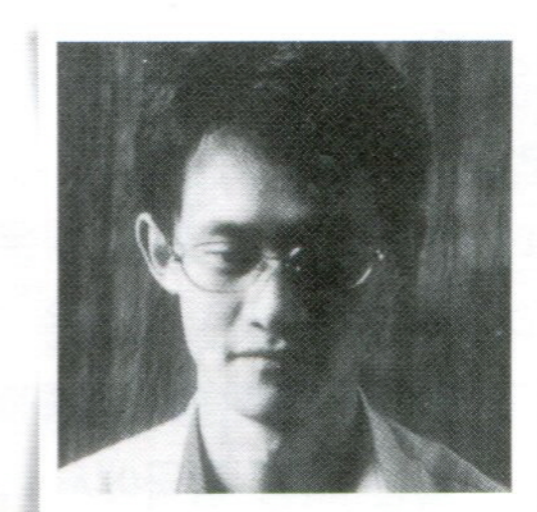
음 향 / 김 영 은



조 명 / 이 상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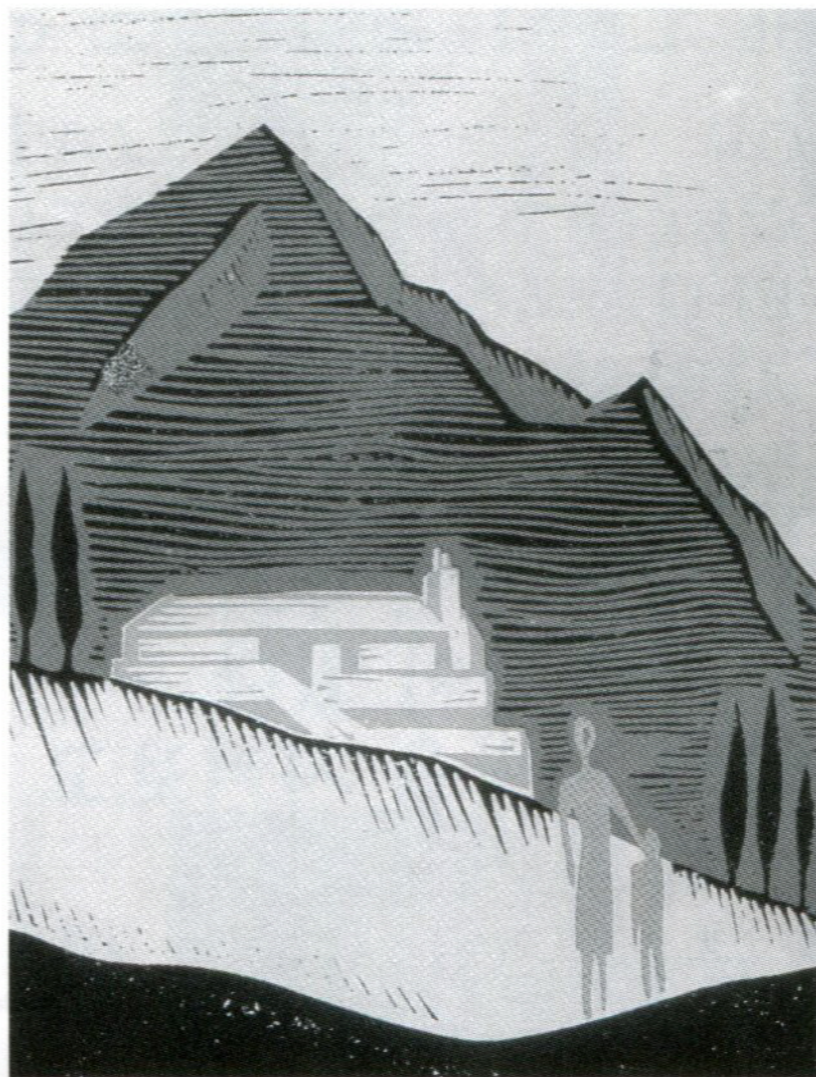


진 행 / 황 용 민



마임지도 / 하 현 관





묘지 클럽

The Cemetery Club

- 작가 / 이반멘첼
- 기획 / 서용우
- 음악 / 김동범
- 분장 / 손서운
- 음향 / 이상미

- 제작 / 故 호성
- 무대감독 / 김석웅
- 무대미술 / 김유리라
- 의상 / 최두선
- 소품 / 김선미

- 연출 / 호민
- 조연출 / 정태윤
- 무대장치 / 서정욱
- 조명 / 호준철
- 진행 / 고재현, 신종섭

■출연

샘 / 홍성현 아이다 / 구민주 도리스 / 김미현 루실 / 엄지영 밀드레드 / 송영주

■일시

아센 제3회 정기공연 9. 7(금)~9. 16(일)

평일 : 오후 7시 30분, 주말 : 오후 4시, 7시

■문의

연당 소극장(051-558-1339) / 극단 아센 기획사무실(051-469-6484)
<http://cafe.daum.net/acen2000>

■단체관람은 9. 20(목)까지 가능합니다.



작품성 있는 희곡 선정에...

서용우

기획/제작의도

극

단 '아센'은 제3회 정기공연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먼저, 작품성이 있는 희곡 선정에 우렘하였다. 창단 후 두 작품 모두 좋은 희곡이긴 하되, 현실적 보편성이 빈약한 의미혼이 강조된 작품이어서 관객과의 아름다운 조우를 목표로 하는 극단의 취지와는 달리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여기서 '좋은'이란, 관객과 친숙하게 접목되어 그들에게 극적 불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특유의 연극적 감동을 이끌어 내는 작품이라는 의미이다.

“감동은 있으되 불거리는 없다면 재미는 있는데 남는 게 없다는 식의 결론에 자책감을 느낀다고 할까?

어떤 유형의 작품이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결론은 “사람내음이 충만한 작품’이라 여겨졌다.

그리고 약 두달간, 문예진흥원 연극대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4,000여 편이 넘는 희곡대본을 비롯 서점/도서관에 비치된 희곡 및 원본 희곡 중 소극장용으로 적합한, 5인이내의 작품을 망라한 결과 창작극을 포함한 5편의 후보자가 가려졌고 최종적으로 <묘지클럽>이 낙점 되었다.

1933년 '이반멘첼'에 의해 쓰여진, 작품은 먼저 영화화되어 관객에게 알려졌고 연극무대 초연이후 지금까지 매년 봄, 가을 시즌을 기점으로 꾸준히 공연되어 호평 받는 극이며, 국내에서는 서울 공연에 이은 두 번째로 부산 초연작이다. 우리가 이 작품을 접하게된 것은 가히 행운이라 할 만 하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초입 본 작품을 대하게 될 관객에게는 감동과 재미를 극단 '아센' 으로서는 대중성과 작품성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공연이 고리라는 확신을 다지며 수고 하신 cast, staff여러분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작품소개

〈The Cemetery Club〉은 1993년 ‘이반멘첼’에 의해 쓰여진 작품으로 연극무대 초연이후 최근 2001년까지 꾸준히 올려지고 있는 성인 블랙코메디이다.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존 작품이 지닌 장점은 “일종의 익살맞고 지혜로운 인생극”으로서 일상성에서 오는 재치와 유머가 돋보이는 것이며, 흔히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웃음거리로서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남편을 여원 세 과부가 중심 축이 되어 이끌어 가는 이 극은 그러나 “여성극”이라는 부제를 붙일 필요는 없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상대적 서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요 일상속에 내재한 사랑, 죽음, 인생이라는 보편성을 익살과 진지함을 경탄 할 만한 혼함으로 드리우기 때문이다. 비록 번역극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공감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공통분 모를 반영하는 본 작품은 이 계절에 숨겨져온 일상의 웃음을 재치 있게 꼬집어냄과 동시에 은은한 감동으로 관객을 눈물지게 할 것이다.

작품줄거리

아이다, 도리스, 루실 세 연인은 20년을 함께 지내온 친구들이자 자신들의 남편과 사별한 공통의 허망함을 공유한 과부들로서 같은 묘지에 안치시킨 죽은 남편들의 묘소를 방문하는 “묘지클럽”의 회원들이다.

그들의 일상은 매달 한 번씩 “아이다”의 집에 모여서 유쾌한 시간들과 잡다한 수다로 자고한 남편들을 추억하면서 묘지로 가는 것이다. 어느가을날 초입, 반복되는 과정을 습관적으로 이어오던 세 연인들의 일상에 한 남자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우정과 삶에 변화가 일게되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론이 부여된다.

그들이 묘지에 찾아갔을 때마침 죽은 부인 묘소를 찾아온 정육점 주인 “샘”이라는 남자를 만난 것이다. 나름대로 개성을 대변하는 세 연인

- 천방지축으로 장난삼아 연애하는 “루실”
- 남편 추억에 민감한 보수성의 “도리스”
- 현실을 수긍하면서도 새 삶을 기대하는 “아이다”

이들은 “샘”을 사이에 두고 반목하면서도 인생의 경험이 있는 여자들답게 익살스럽고 현명하며 유쾌한 재치로 자신들이 마음을 드러내고 마침내 모든 오해와 반목이 끝났을 때 그 행복의 끝자락에는 도리스의 죽음이 조용히 다가선다.





연출 / 호민

사 램 내음을 그리워하며...

“人生은 얼마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하는 여정” 이라는 어느 시인의 글이 문득 떠오르던 황토먼지 뿌옇게 훑날리던 어느 봄날. 몇 년간 안부도 모른 채 지내왔던 兄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옛말과는 반대로 남해 해상 근해에서 조업中 선박 충돌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연극작업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조우를 갖고 싶다는 극단 “아센”의 열망이 제3회 정기공연 준비작업으로 이어져 근 두달간은 이 대본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 마무리 단계로 5편의 후보작을 두고 최종 낙점 시기에 도달한 무렵입니다. 兄의 비보를 접한 순간 주저없이 <The Cemetery Club> <묘지클럽>이라는 작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사람, 죽음, 인생에 관한 진지한 일상속에 담긴 뭉클한 감동! 거기에는 사람의 내음이 흠뻑 베여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 하게도 兄의 실종사는 극단 “아센”의 금번 공연에 정신적 물질적 힘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죽은자가 산자를 살리게된 모순” ... 작품 마무리 단계에 이른 이즈음 본 공연의 실직적 제작자인 故 호성 님의 영전에 바친다는 마음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금번 여름 내내 고생하신 cast. staff 여러분들의 땀과 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저녁무렵이면 부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아직도 시신을 못찾아 애태우는 유족들이 아픔을 뒤로 한 채 아는지 모르는지 일몰의 바닷가 한 편으로 커다랗게 떠오른 미소짓는 兄의 얼굴을 대하면 어린시절의 그랬듯이 모래밭에 정겨이 마주 앉아 “고향생각”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兄! 아쉽고, 서럽던 지나온 모든일 그저 놓고 저승길 편히 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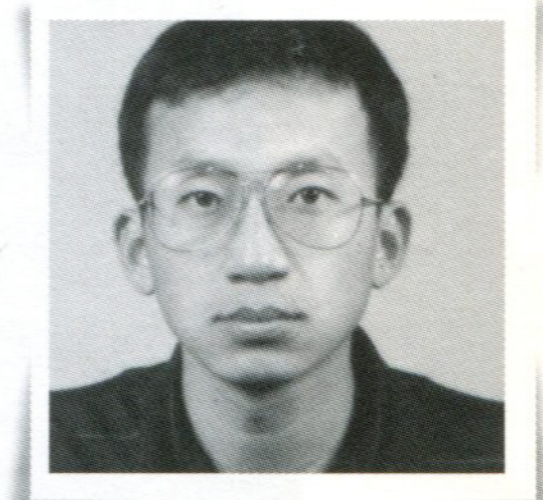
연출 / 호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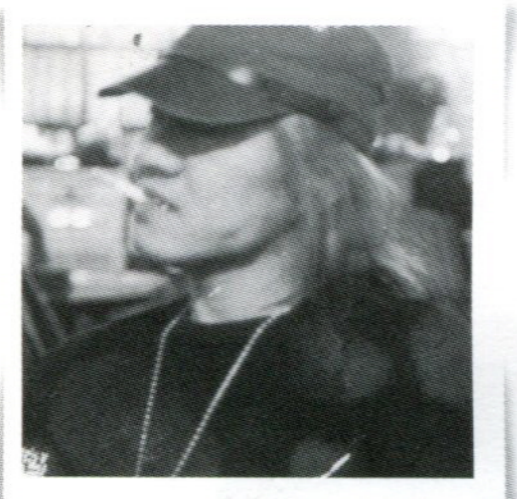
기획 / 서용우



무대감독/김석웅



조연출 / 정태운



음악 / 김동범



분장/손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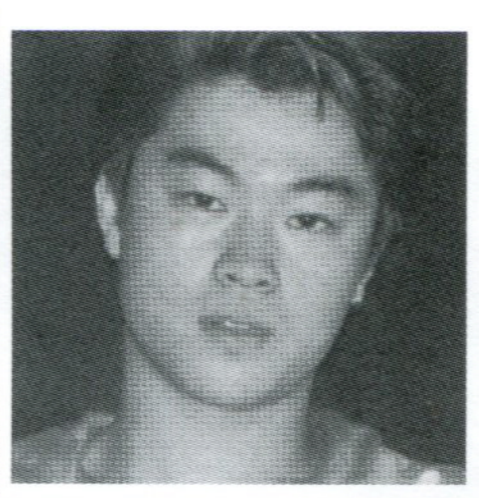
무대미술 / 김유리라



의상 / 최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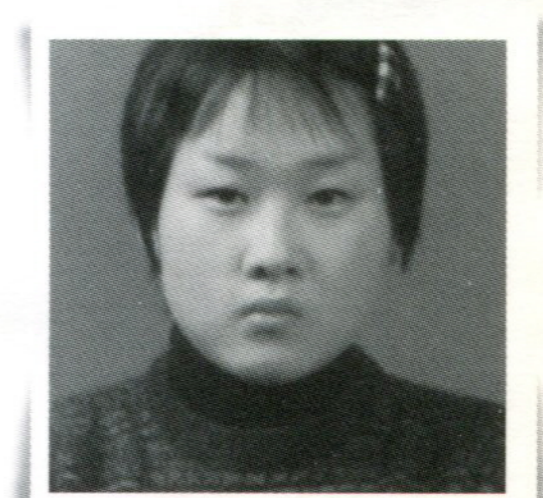
조명 / 호준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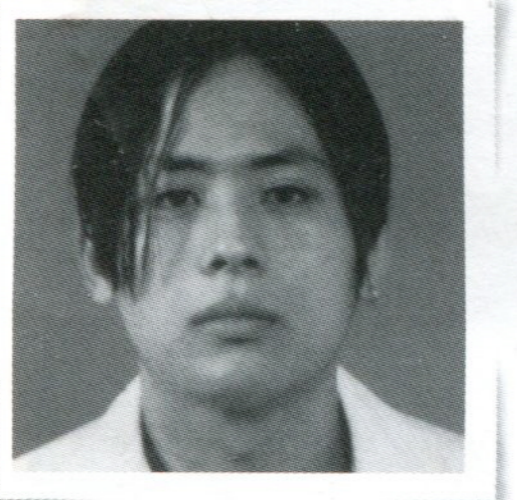
무대장치 / 서정욱



음향 / 이상미



소품 / 김선미



진행 / 고재현



진행 / 신종섭



제작/ 故 호성





생 일 파 티

작 / 해롤드 핀터 연출 / 유 상 흥

■ 출 연

유상흥, 박혜인, 김지양, 고동민, 여분희

■ 주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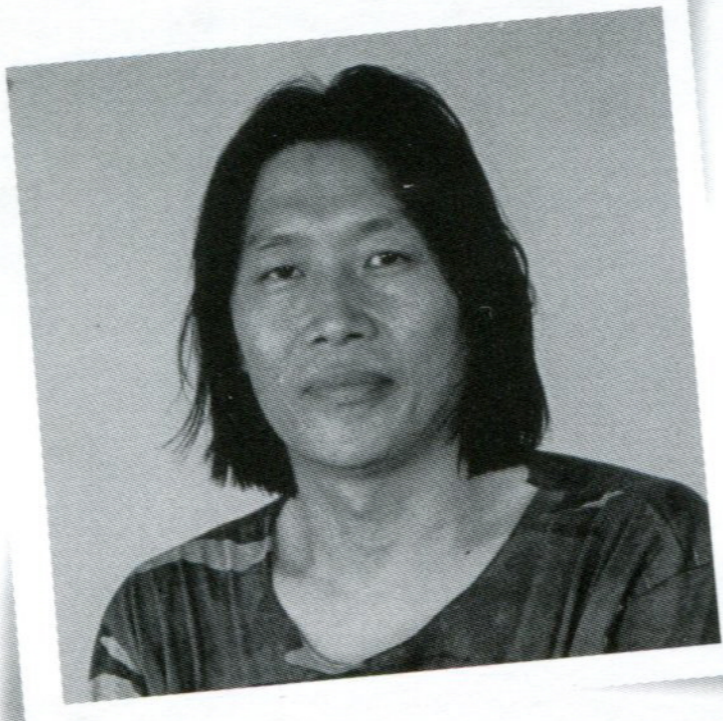
장고개 작업실 : 051-643-6179

■ 일 시 9. 20(목)~9. 30(일)

평일 : 오후 7시 30분, 주말 : 오후 4시, 7시

■ 문 의

연당 소극장(051-558-1339)



말은 시간을 지탱해 준다.

연출 / 유 상 홀

말은 시간을 지탱해 준다.

하지만 말은 이미 무의미 해진다.

story를 쫓아가는건 우리에게 기억되어진
일상의 정서가 아니라 약간은 일탈되어진
가상의 정서에 대한 흥미다.

연기는 일관되지 않고 사위로 튀는 의식을 쫓아간다.

무대또한 간결함과 약간의 상징으로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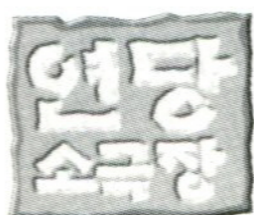
다시 말이 계속된다.

일탈하고픈 일탈해야만 하는 일상의
이유들이 나열되고 있다.

하지만 일탈은 가상이고 꿈이고 제스처임에 불과함을 말들은
다시 또 일깨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이 평면 위에 갇고
있는 선을 너머 입체를 경험할때 일말의 일탈을 획득하게 된
다. 해결이 아니라 해소라는 표현의 목적에 다다르면 된다. 평

면에다 입체를 어떻게 입힐것인가

이 작업에 연출의 과제다.



핀터의 극은 흔히 위협극(Comedy of menace)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는 희곡 속에 위협의 근원이 불명확하고, 그 위협의 효과 또한 불안화 초조함의 연속성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핀터가 설정한 공간은 폐쇄된 공간이다.

이러한 피터의 공간은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와 등가 물이다. 또한 극중 상황과 무대배경은 평범하면서도 사실적이지만, 등장 인물들이 행위나 대화 이면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가 짙게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공포와 미스터리는 원인 결여로부터 기인하며 그로 인해 인물들의 인간 관계는 고독감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후기로 접어들면서 피터의 위협극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외부 세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세계에서 비롯된다. 초기 극의 등장인물들이 비천한 계층이기에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후기 극의 등장인물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소통으로서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단절은 위협적이지만, 코믹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핀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생일파티〉는 공간의 폐쇄성이 초기 극보다는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다.

또한, 대화의 의사소통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위협극의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극의 무대배경은 해변가의 어떤 하숙집이다.

극은 아침에 시작하여 다음 날 아침에 끝나는 3막 구조다.

1막은 하숙집 거실이다. 메그와 피티는 이 집의 주인이자 부부이다.

이 집의 하숙인 스텐리는 메그를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애처럼 군다.

그런 스텐리를 메그는 아들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생각하며 꾸짖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한다. 스텐리를 찾아온 듯한 골드버그와 맥켄이 이 집을 방문하여 저녁9시에 스텐리의 생일파티를 열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스텐리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고 완강히 거절한다. 메그가 장난감 북을 스텐리의 목에 걸어주고 축하해 주자, 그는 점점 결렬하게 북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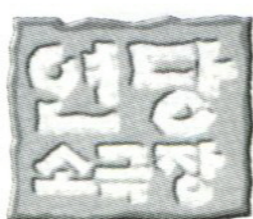
2막은 그날 저녁이다. 골드버그와 맥켄은 말로써 스텐리를 협박하고 위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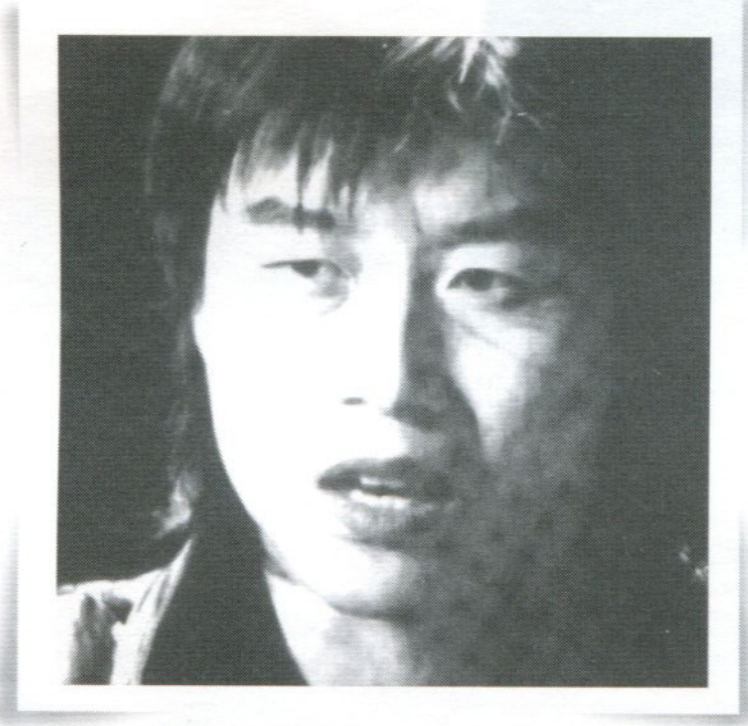
스텐리는 마침내 북을 짓밟아 버리고 메그이 북을 조른다.

갑자기 정전이 되어 파티는 아수라장이 된다. 불을 찾아 거실을 밝혔을 때 스텐리는 옆집아가씨 룰루를 책상 위에 눕혀 놓고 있다. 골드버그와 맥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간다.

3막은 다음 날 아침이다. 골드버그와 맥켄은 메그와 피터를 밖으로 내보내고 스텐리를 몬티에게 데려가려 한다.

두 사람은 깨끗하게 차려입은 스텐리를 말잇기게임을 하면서 위협하고 스텐리를 데리고 나간다. 메그는 돌아와 어젯밤 파티는 근사했다고 주절댄다.





연출 / 유 상 흘

60년생 / 81년 극단 부산레파토리 시스템 입단.
먹중잡이, 내마, 사람의 아들, 칠산리, 맥베드,
불의 가면, 생일파티, 지하철 1호선, 청바지를
입은 파우스트, 리어왕, 밤새 안녕하십니까,
결혼 외
견습아이들 조연출 / 무영탑 각본, 연출
/ 2001 생일파티 연출



무대미술 / 박 동 섭



의상 / 민 순 라



분장 / 임 유 경

